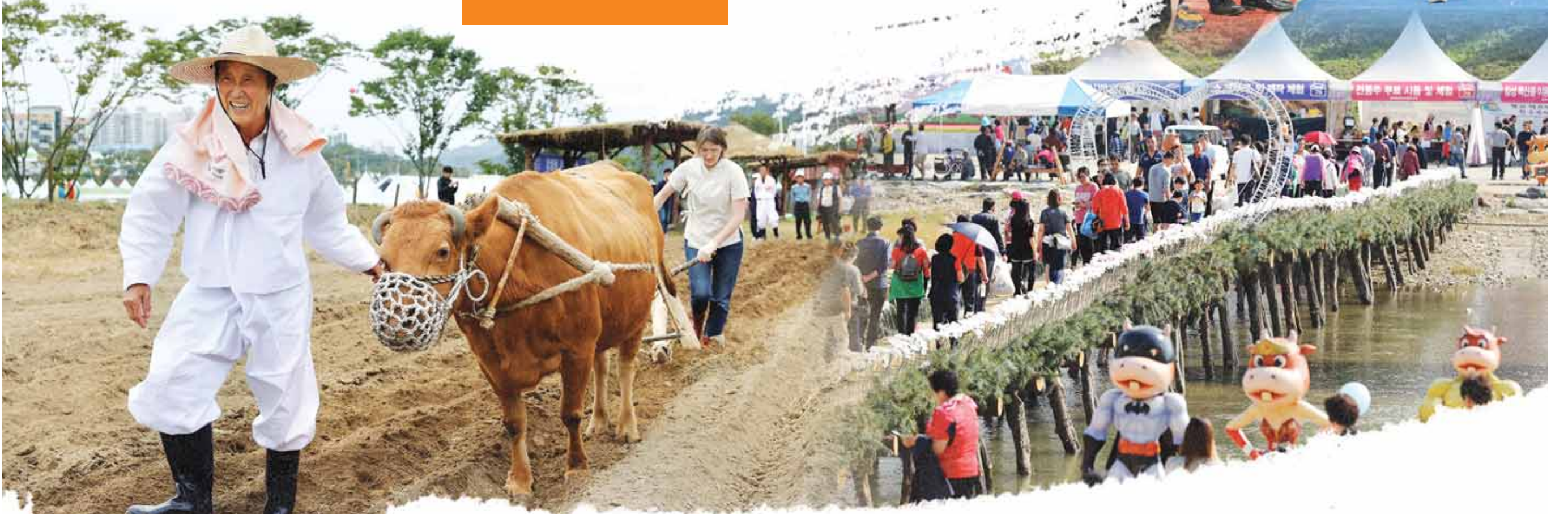


희성 한우

맛있소
재밌소
즐기소
달라졌소



▶ 위부터 오른쪽으로 희성한우축제장에서 소 밭 같이 체험을 통해 옛 농경문화를 엿볼 수 있다.
- 희성한우축제장인 성강을 가로지르는 쇠다리.
- 옛날 머슴들이 품삯을 정할 때 돌을 들어 힘을 겨루던 것에서 착안한 머슴돌 들기 대회가 올해 축제에서는 더욱 다양하게 진행된다.
(사진제공=희성군청·강원일보)

제13회 희성한우축제 19~23일

강원

“전국 최고의 한우 맛 좀 보실래요.” 제13회 희성한우축제가 19일 강원도 희성을 섬강둔치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오는 23일까지 닷새간 펼쳐지는 올해 축제는 그동안 희성한우의 ‘맛’을 알리는 먹거리 축제에서 희성한우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농경문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닷새간 펼쳐지는 희성한우축제의 다양한 ‘맛’을 살펴본다.



희성한우 즐기는 145m 셀프식당
목장 주변 350m 건초 놀이터·체험장
노천카페·축육장·매일 풍성한 공연

원도심·전통시장서 프린지 페스티벌
강풀 웹툰작 전시...매직&인형극
축제장 전용 화폐 ‘우페’ 통용
옛날 우시장 재연·짚라인 첫 선

◇맛있소

한우의 대명사가 된 ‘희성한우’. 왜 한우 하면 떠오르는게 희성한우일까. 올해 축제는 이런 의문을 풀어준다. 희성한우 주제관을 확대 개편해 희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우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또 희성한우축제 스토리북을 제작, 금금증을 일목요연하게 풀어준다.

일관된 희성한우의 맛을 위해 암행어사와 같은 ‘한우감시단’이 축제장 곳곳을 다니며 방문객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희성한우를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총 길이 145m의 전세계에서 가장 큰 셀프식당은 희성한우의 맛을 더하는 메인 공간이다. 희성한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희성한우 주제관 내 팔팔이벤트 참여를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먹음직스러운 희성한우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소한마리 메뉴가 개발돼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재밌소

희성한우만 먹고 끝이 아니다. 엄청난 즐거거리가 축제의 묘미를 더한다. 테마목장을 주변으로 350m에 이르는 체험구역에서는 한우 관련 체험과 전통놀이, 현대놀이를 적절히 배가해 즐거움을 준다. 옛 농촌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건초 놀이터와 한우인형 쓰고 축제장 누비기, 축제장의 밤을 밝혀줄 LED 야간조명, 수려한 섬강에서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노천카페와 축육장, 누가 힘이 센지 가능해보는 머슴돌 들기 대회 등이 축제를 풍성하게 만드는 포인트다. 매일 저녁 메인무대를 장식하는 풍성한 공연은 연인과 소풍, 가족, 화합, 군민 등을 주제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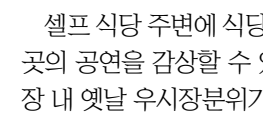
◇즐기소

희성한우축제 역대 최초로 시도되는 프린지 페스티벌은 이번 축제의 백미로 손꼽히고 있다. 매년 축제 개최 시 축제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은 원도심과 전통시장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다. 원도심에 위치한 희성농협 예식장과 식당, 옛 희성새마을금고를 공연장으로 활용한다. 우리나라 웹툰의 서막을 알린 작가 강풀의 웹툰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작가와의 토크쇼를 통해 직접 만날 수 있다. 유료인 이번 토크쇼 입장권은 육전에서 진행된 사전예매에서 조기 마감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밖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매직&인형극, 버블쇼, 세대를

망라한 청춘 코미디 연극 ‘라스트 메이트’, 어르신들을 위한 추억의 노래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방문객, 원도심 상인들과 소통하며 축제의 지평을 넓힌다.

◇달라졌소

축제장에서만 쓸 수 있는 동전 형태의 전용 화폐가 통용된다. 귀여운 희성한우 캐릭터가 새겨진 동전, ‘우페’(사진)는 현금처럼 쓸 수 있으며, 축제 기념품으로도 제격이다. 우페만 있으면 축제를 배로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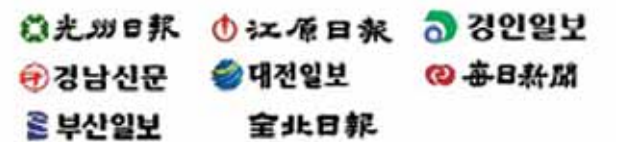


셀프 식당 주변에 식당주변에 한우 맛을 즐기면서 축제장 곳곳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대형 LED TV가 설치된다. 축제장 내 옛날 우시장 분위기를 살리는 전골목장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다. 어린이 놀이터가 보다 다양해졌고, 아름다운 섬강변을 한눈에 조망하며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짚라인도 올해 첫선을 보인다. 수많은 LED 전등이 축제장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원팔연 희성한우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 출범한 희성문화재단과 힘을 합쳐 어느 해 보다도 풍성하고 완성도 높은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규호 희성군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희성한우와 축제의 명성이 높아지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조명을 받는 등 명실상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먹거리축제로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강원일보 허남윤기자



新韓道郵報는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광주맛집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